

정견 발표문

성명: 정 현 속

안녕하십니까?

대한장애인수영연맹 제 6대 회장 후보자 정 현 속 입니다.

대한장애인 수영연맹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대한장애인 수영연맹 가족여러분.

대한장애인 수영연맹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다가오는 도쿄패럴림픽에서 대한장애인 수영연맹과 대한민국 장애인 체육의 위상을 전 세계 만방에 알리고, 우리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전 방위적 지원을 위한 노력을 지속화 하는 것입니다.

장애인식 개선과 대표적인 생활체육 종목을 실현하는 연맹으로 거듭나고, 장애인체육의 발전과 활성화에 이바지한 자랑스러운 장애인 체육 단체로 기록되는 것입니다.

지난 4년간은 참으로 숨 가쁘게 지내왔습니다.

매년 국가대표들의 국제대회, 국내대회 참가 및 개최, 국제 전문 인력 양성(국제심판),상임심판 운영, 기초종목사업등과 시설규정 제정으로 종목의 독립성강화, 장애인 선수들의 기량 향상과 재활활동에 기여하고, 더 나은 복지 향상을 위해 서울선 정형외과와 업무협약을 하는 등 유관기관과의 협약 등으로 활성화를 위한 초석을 다졌습니다. 2018 인도네시아 팔렘방 아시아경기대회에서는 남북단일팀을 구성하여, 단체전 동메달 획득과 함께 전 세계에 평화의 메시지도 전파하였습니다.

기관 평가에서도 “A” 등급을 받았으며, 전국장애인 체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아 “공로상” 수상과 대한장애인 체육회로부터 “장애인체육 진흥상” 도 수상 하였습니다.

앞으로의 4년은 단단한 초석위에서 꿈을 향해 진일보 되어야 합니다.

2021년 대한 장애인 체육예산이 790억 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대한장애인 수영연맹 및 다른 가맹단체 사무국의 안정적인 운영과 장애인 수영 국가대표 선수단의 훈련여건 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대한장애인 체육회에 예산증액을 요구 해왔으며,

예산내용은 가맹단체 인건비가 증액됐고, 국가대표 지도자 월급여가 반영돼 사상 처음 월급제가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가대표 훈련일수가 역대 최대 규모로 증대되었으며, 선수수당 또한 일 7만 원으로 인상돼 선수들의 처우 및 보다나은 훈련여건이 조성된 것으로 압니다.

국가대표가 안정된 훈련여건 에서 훈련할 수 있게 됐고, 사기진작을 위한 가맹단체 직원들의 급
인상이라는 부분은 사무국이 역량을 다해 장애인체육인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장애인 수영선수들이 대회 참가자로서 뿐만 아니라 장애인스포츠 구성원으로서의 적극적이고, 능
동적인 역할을 기대합니다.

선수가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선수가 경기력을 발휘 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 경기장 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 하여야 하고 , 두 번째 지도자에 대한 지속적 보수
교육등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 하여야 하며, 세 번째 경기운영이 원활하게 되고 국제기술임원으로
서 활동 할 수 있도록 심판 역량강화 또한 필요합니다. 아울러 시, 도지부 연맹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 중앙 연맹과 시, 도지부연맹이 균형발전 되고 평등한 동반자가 되는 것입니다.

월드시리즈 또는 세계장애인 수영선수권 대회 유치로 세계에 대한민국의 위상과 대회를 통해서
이뤄지는 다양한 강습회를 통해 전문성을 키울 것이며, 국내대회 개최도시 증대, 경기장 시설에
대한 공인 사업으로 우리선수들이 차별받지 않는 여건을 조성할 것이며, 각종강습회 및 사업을
시, 도지부와 연계하여 그 수익을 시, 도지부운영에 도움을 드리하고자 합니다

회장인준을 받은 다음날부터 실질적인 활동에 착수하겠습니다.

<지도자, 심판 선수위원회의 정례화> 및 <국제대회개최 추진 특별위원회>, <시도지부 자문위원회
구성 및 정례화>, 를 가동하겠습니다.

그 초석으로 이번선거에서 먼저 승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대한장애인 수영연맹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가겠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0년 12월 08일

대한장애인수영연맹 제6대 회장

후 보 자 정 현 숙

대한장애인수영연맹 회장선거관리위원장 귀중